

구어 담화에서 보조사 ‘은/는’의 의미와 담화 기능*

-한국어교육 문법을 위하여-

한송화

(연세대학교)

<Abstract>

Han, Song Hwa. 2017. The Meaning and Function of Korean Particle ‘un/nun’ in Spoken Languages: For Korean Pedagogic Grammar. *Korean Semantics*, 55. Teaching functions of grammatical items in various contexts is useful to organize learners’ grammar intuitions. So Korean learners should know functions, speakers’ attitudes and implications of grammatical items in various contexts as well as abstract meanings. For this pedagogic grammar of particle ‘un/nun’, I analysed sentences in real Korean spoken languages. By analysing real sentences, Korean particle ‘un/nun’ has abstract meaning of limiting the scope of invoked objects and have contrastive implication because of this meaning. And ‘un/nun’ phrases are topics in discourse usually and involved in coherence. Lastly, speakers can use ‘un/nun’ phrases to disagree hearers thoughts or rebuke hearers’ actions pragmatically.

핵심어: 구어(Spoken Languages), 한국어 보조사(Korean particle), 한국어교육 문법(Korean pedagogic grammar), 담화 기능(Discourse functions), 화제(topics)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09-361-A00027).

1. 서론

한국어교육에서 보조사 ‘은/는’은 주격조사인 ‘이/가’와 함께 초급 단계에서 교수 학습되는 기초적인 문법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초급에서 교수 학습되는 보조사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일정 단계에서 한국어 학습자들이 완벽하게 통달할 수 있는지, 또는 한국어 교수자들이 ‘은/는’의 의미와 기능에 대해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교수에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 의심스럽다. 많은 교수자들은 학습자로부터의 ‘은/는’과 ‘이/가’의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러워하며,²⁾ 많은 오류 관련 논문에서도 학습자들의 ‘은/는’의 오류가 고급에 이르러서도 크게 줄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다.³⁾

사실 보조사 ‘은/는’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화제(topic)와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에 일반적으로 암묵적 동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 두 의미 중 ‘대조’를 기본 의미로 보고 화제를 특정한 문맥에서 드러나는 기능으로 설정하기도 하고(최현배 1937/1983, 남기심·고영근 1985/2011 등), 화제를 기본 의미로 설정하고 대조를 맥락에서 드러나는 해석상의 효과로 보기도 하였다(채완 1975, 정희원 2001, 남윤진 2005, 최동주 2012 등).⁴⁾

‘은/는’의 이러한 화제와 대조의 의미는 한국어교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한국어교육용 학습서나 교재, 사전 등에서 ‘은/는’이 화제와 대조, 그리고 그 외 강조 등의 특수한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기술해 오고 있다.

(1) 1. 주제를 나타냄.

- 1) (상황에서) 주어진 것에 대해 말할 때 ‘는’을 사용한다. ‘~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의 뜻.
- 2) (이야기에서) 앞에서 말한 것을 다음 문장에서 그것에 대해 다시 말할 때

2) 김영일(2016)에서도 온라인 한국어교육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 하나가 ‘은/는’과 ‘이/가’에 대한 것이며, 이에 대한 답변이 일치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3) 김정숙, 남기춘(2002), 이정희(2003)에서는 ‘은/는’의 오류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가면서 많아진다고 하였으며, 한송화(2016a)에서도 ‘은/는’의 과적용 오류가 등급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한 바 있다.

4) 대조, 대립, 그리고 화제, 주제, topic 등으로 학자마다 용어 사용을 달리 하기는 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대조와 대립은 ‘대조’로, ‘화제, 주제, topic’은 ‘화제’로 사용하기로 한다.

‘는’을 사용한다.

- 3)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이를 주제로 쓸 때 사용된다.
2. 대조를 나타냄. (문장의 어디에서나 쓰이어) 어떤 사실이 다른 것과 대조를 나타낸다.
3. 특수 용법
 - 1) [연결어미 뒤에 쓰이어] 강조를 나타낸다.
 - 2) [‘가기는 간다’와 같이 반복되는 두 말을 잇는 곳에 쓰이어] 앞의 사실이 전제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조건이 뒤따름을 나타낸다.

<이희자, 이종희(2001:180-181)>

(2) 은/는

This particle is used with a noun to denote the **topic or theme** of a sentence. When the noun ends in a consonant, use ‘-은’. When the noun ends in a vowel, use ‘-는’. It is also used to express **comparison or emphasis**. <연세한국어1: 6-7>

위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는 보조사 ‘은/는’의 의미 기능을 화제나 대조, 그리고 강조의 의미로 분리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방식은 국립국어원(2005b:155-156), 강현화 외(2016:85)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또 이해영(2004)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의 보조사 ‘은/는’의 문법 설명과 문법 연습 등을 검토하면서 초급에서 화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이 문법 설명으로 제시되고 교수되거나 교재에 따라 화제의 기능만이 교수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에서의 보조사 ‘은/는’의 의미 기능에 대한 이해는 화제와 대조, 그리고 이 두 의미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강조’의 의미를 추가하여 기술되고 교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교육에서의 이와 같은 화제와 대조(강조를 포함하여)의 다의적 의미 기술이나 교수는 보조사 ‘은/는’에 대한 그간의 국어학 분야의 논의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것이며, 오히려 이로 인해 한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보조사 ‘은/는’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이 한국어교육용 사전에서의 예문을 보면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 준다.

- (3) ㄱ. 교실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 ㄴ. 모르는 것은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ㄷ. 밥은 제대로 먹으면서 다니는지 모르겠구나.
 - ㄹ. 편지는 “형님 보십시오”로 시작하였다.
- (4) ㄱ. 그렇지만 어쨌든 재미는 있었어.
 - ㄴ. 학교가 좀 멀기는 해요.
 - ㄷ. 사기는 샀는데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 (5) ㄱ. 어제는 날씨가 좋았다.
 - ㄴ. 올해는 작년에 비해 기온이 많이 올랐다.
- (6) ㄱ. 아무리 바쁘더라도 식사는 해야지.
 - ㄴ.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
 - ㄷ. 먹기 싫어도 성의를 생각해서 일단 한번 먹어는 보아라.

위 (3ㄱ~ㄷ)은 강현화 외(2016)에서 강조 의미의 예문으로, (3ㄷ)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주제 의미의 예문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예문에 사용된 ‘은/는’의 의미를 다르다고 볼 수 있는가?) 또 (4ㄱ, ㄴ)은 이희자, 이종희(2001)에서 대조 의미의 예문으로, (4ㄷ)은 강조의 예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서 제시된 문장만으로는 (4ㄴ)과 (4ㄷ)에서 ‘은/는’의 의미 차이가 그리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⁵⁾ 또 (5ㄱ)은 국립국어원(2005)에서 주제 의미의 예문으로, (5ㄴ)은 강현화 외(2016)에서 대조 의미의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후자의 경우 ‘작년에 비해’라는 맥락이 없다면 전자의 예문과 동일한 경우로서, 결국 화제와 대조의 의미가 맥락에 따른 것임을 보여 주는 실례라 할 것이다. 또한 (6ㄱ, ㄴ)은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강조 의미의 예문으로, (6ㄷ)은 국립국어원(2005)에서 대조 의미의 예문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

5) 또한 이들의 의미 차이가 고급의 한국어 학습자에게도 인지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실제로 본 연구자가 2016년도 2학기 A대학교 대학원에서의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 전공의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은/는’의 의미 기능 이해도를 점검한 결과, (3ㄴ)의 예문에 대해서는 강조 29.2%, 화제 70.8%로 이 예문의 ‘은/는’을 화제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3ㄷ)에 대해서는 강조 60%, 화제 32%로 이 예문의 ‘은/는’을 강조의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어, 한국어교육용 사전에서 언급하는 ‘강조’와 ‘화제’ 구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6) 또 많은 학습자들도 이희자, 이종희(2001)에서 대조의 예문으로 제시한 (4ㄱ, ㄴ)에서의 ‘은/는’에서 대조의 의미를 간파하지 못했다. 즉 앞서 말한 국어국문학 및 한국어교육 전공의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들은 각각 80%, 75% 학생들이 이를 강조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조의 의미라고 답한 경우는 각각 8%, 0%였다.

들 예문에 사용된 ‘은/는’의 의미를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7) 이와 같이 사전의 예문을 검토해 볼 때 화제와 대조의 의미로 전형화된 예문을 제외하면 많은 예문들이 화제와 대조라는 의미로 포괄하기 어려운 예들이 실제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어교육에서 학습자들이 접하는 초급 교재에 사용된 ‘은/는’의 경우에도 그 의미를 무엇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가 많다.

(7) 마리아: 은행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학생회관에 있습니다.

마리아: 학생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수: 도서관 앞에 있습니다. <연세한국어1: 48>

(8) 마이클: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윌리엄입니다.

수진: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마이클: 수진 씨는 무슨 일을 합니까?

수진: 저는 대사관에 다닙니다. 마이클 씨는 무슨 일을 합니까?

마이클: ① 저는 컴퓨터 회사에 다닙니다. 요즘 조금 바쁩니다. 수진 씨, 금요일에 몇 시까지 일합니까?

수진: ②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합니다. 보통 12시까지 일합니다. ③ 마이클 씨는요?

마이클: 저도 ④ 금요일에는 오전 근무만 합니다.... <말이 트이는 한국어1: 12>

위의 예시는 한국어교재 초급 대화문에 나타난 ‘은/는’의 예시이다. (7)에서 ‘은행이’와 ‘학생회관은’의 차이를 학습자들에게 주어와 화제의 차이라고 이해시킬 수 있을지, 또 (8)과 같이 ‘은/는’ 도입의 전형으로 보이는 소개와 관련한 회화에서 ‘은/는’의 기능을 화제라고 하여 이를 학습자에게 교수하면 이를 학습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즉 ①에서 ‘저도 대사관에 다닙니다’라고 대답을 다소 변형시켰을 때 ‘저도’는 ‘저는’과 동일하게 화제인지 아닌지 학습자들에게 혼란스러울 것이다. 또 ②와 ④의 ‘금요일에는’이 모두 화제인지 아니면 문두에 있는 ②만 화제라고 해야 할지, 또 ③의 ‘마이클

7) 앞서 논의한 외국인 유학생 대학원생의 경우, (6ㄱ)에 대해서는 88%의 학생들이 강조의 의미라고 하였으며, (6ㄷ)에 대해서는 58.3%의 학생들이 강조의 의미라고 하였다.

씨는’도 화제인지 학습자에게 이해시키기는 매우 혼란스러울 것이다.

즉 지금까지 한국어교육용 문법서나 사전 혹은 교재에서의 문법 설명에서의심의 여지없이 다루어져 왔던 ‘은/는’의 화제와 대조의 의미 기능이 실제 예문 몇 개만 들춰 보면 이의 의미 기능을 무엇으로 규정할지, 이에 대해 학습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미형(2015)와 김영일(2016)은 지금까지의 국어학에서의 ‘은/는’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한국어교육적 관점에서 보조사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재설정하고 이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한국어교육에서 보조사 ‘은/는’의 의미를 재설정하고 이러한 의미로 인해 ‘은/는’이 가지는 담화에서의 함의와 기능을 실제 구어 담화 분석을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⁸⁾ 물론 이러한 작업은 그 동안의 국어학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육에서 활용 가능하고 효율적인 교육 문법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한국어교육 문법에서의 ‘은/는’의 의미와 기능을 재구해 봄으로써, 교육을 위한 문법은 문법 항목의 추상적인 의미 기능을 사전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추상적 의미가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지를 과정적으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도 제안하도록 할 것이다.

2. 선행 논의

한국어의 보조사 ‘은/는’은 많은 문법서와 논문에서 대조의 의미나 화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은/는’의 기본적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즉 ‘은/는’의 의미 기능으로 대조와 화제가 공존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조나 화제 중 하나의 의미 기능이 기본이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기본적 의미 기능이 문맥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의미인지, 아니면 ‘은/는’의 본래의 의미 기능은 대조도

8) 본고에서는 구어 담화에서의 ‘은/는’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의 구어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담화 상황의 보완을 위해 드라마 자료를 활용하였다.

화제도 아닌 제3의 의미인지에 대해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다. 또 그간의 ‘은/는’에 대한 논의는 의미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통사론 혹은 문장론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은/는’ 명사구를 통사론이나 문장론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은/는’이 문장론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담화 화용론 내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었다.

먼저 보조사 ‘은/는’의 의미를 대조로 보려고 했던 논의는 양인석(1973), 이기동(1981), 이남순(1996), 홍사만(2002), 임동훈(2004, 2012), 최규수(2004, 2016), 진영철(2005, 2006), 김미형(2011, 2015) 등이다. 이에서는 ‘은/는’이 기본적으로 ‘은/는’과 결합하는 명사구(결합항)에 대한 자매항을 불러일으키며, ‘은/는’과 결합한 명사구만이 그 문장에 드러난 행위나 사건과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로 말미암아 담화 상에서 화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소극적 혹은 완곡적 표현으로 사용되거나 화자의 명제에 대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이다.

반면, 남기심(1972), 임흥빈(1998), 유동석(1998) 등에서는 통사론 혹은 문장 단위의 문장론 내에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은/는’ 명사구에 대한 설명을 위해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 중 하나로서, ‘은/는’ 명사구를 주체어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또 ‘은/는’ 명사구를 문장론이 아닌 화용론에서의 화제(topic)-평언(comment) 구조의 ‘화제’로 보고, 담화 차원에서 ‘은/는’ 명사구의 화제로서의 특성을 밝히고자 한 논문들이 많았는데, 채완(1975), 이정민(1992), 이춘숙(1999), 정희원(2001)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 논문에서는 ‘은/는’이 화제 표지이며, 대조적 의미는 맥락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의 ‘은/는’에 대한 논의는 위와 같이 ‘은/는’의 의미를 ‘대조’로 볼지, 아니면 ‘화제’로 볼지의 이분법적 논쟁이 아니라 이기갑(2001), 박호관(2007), 박철우(2015) 등에서의 ‘부각시키기, 들춤, 논의 대상 한정’이라는 대조와 화제를 아우르는 의미 기능을 설정하거나, ‘은/는’의 담화에서의 기능이나 화자의 명제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와 관련한 선택의 문제로 논의되고 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최근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며, 이미 이기동(1981)에서 주어에서의 ‘이/가’와 ‘은/는’의 선택은 화자의 명사구에 대한 판단과 평가에 의한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신호철(2001)에서는 ‘은/는’을 시점(point of view)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은/는’을 선택함으로써 화자가 사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등의 사태에 대한 시점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홍수(2006), 홍정아(2011)에서도 소설에서의 ‘은/는’은 관점 이입 양상의 하나로서,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관점을 옮기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은/는’의 담화 내에서의 기능에 주목하여, 박승윤(1986)에서는 명시적이지는 않으나 결속(coherence)과 관련하여 언급한 바 있으며, 최규수(1987)에서도 ‘은/는’이 문장과 문장을 의미-통어적으로 이어주는 역할, 즉 문장의 짜임(구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담화 전개의 기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오현아(2011), 최동주(2012), 김수정·최동주(2012)에서는 ‘은/는’의 담화 기능을 활용하여 설득 텍스트와 신문 기사, 소설에서의 담화 구조를 분석하고 있으며, 한송화(2016b)에서는 서사(narratives)에서의 ‘은/는’ 명사구가 담화의 뼈대 구조를 이루는 전경(foreground) 정보와 관련성이 있을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국어학에서의 ‘은/는’의 논의는 이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의 탐구와 다양한 담화에서의 ‘은/는’의 기능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은/는’에 대한 연구로는 허남영(2010), 이창덕(2014), 김미형(2015), 김영일(2016) 등이 있는데, 이창덕(2014)에서는 ‘은/는’의 기본 의미를 ‘대조’로 보고 결합하는 명사의 특성과 문장 내의 위치, 발화 상황에 따라 ‘대립’과 ‘주제’의 하위 의미로 분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였으며, 김미형(2015), 김영일(2016)에서는 ‘은/는’을 대조나 화제 중 어느 하나로 못박기보다는 국어학에서 논의해 온 성분 자매항의 존재에 대한 화용상의 기본적 전제를 통해 ‘은/는’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가’와 구분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 한국어교육에서도 ‘은/는’이 화제나 대조 의미를 가진다는 이분법적 논의보다는 ‘은/는’의 보조사로서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에 적용시키고자 하는 논의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은/는’의 본질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의미가 실제 발화에서 어떠한 함의를 가지며 어떤 담화 기능을 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할 것이다.

3. 보조사 ‘은/는’의 의미

3.1. 대상의 한정

보조사 ‘은/는’이 가지는 화제와 대조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앞서 논의한 대로 많은 연구에서 화제와 대조의 의미 중 하나의 의미로 다른 하나를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결국 ‘은/는’의 본질적 의미를 어느 쪽에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논쟁과 관련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많은 논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은/는’의 화제로서의 의미는 ‘대조’의 의미와는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성기철(1985), 홍사만(2002), 최규수(2016) 등), 화제는 ‘은/는’만이 가지는 기능이 아니다(성기철(1985), 이춘숙(1999), 임동훈(2014)). 또 많은 논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화제의 전형적인 예문에서도 ‘은/는’의 대조적 의미를 설정할 수 있거나 자매항의 존재가 인정된다(성기철(1985), 홍사만(2002), 전영철(2005), 임동훈(2014)). 따라서 이러한 논의를 보면 ‘은/는’의 의미로서 대조나 혹은 대조와 화제를 아우르는 제3의 의미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화제와 대립되는 대조의 의미는 양인석(1973), 성광수(1978), 이춘숙(1993), 홍사만(2002:181), 최규수(2004) 등 많은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앞뒤 연결된 문장이나 선행이나 후행 담화 혹은 언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어도 담화 상황에서 대조를 상정할 수 있는 경우 드러나는 의미일 뿐이지 ‘은/는’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화제와 대조를 아우르는 제3의 의미 설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미로 이기갑(2001)에서는 부각시키기, 박호관(2007)에서는 [+들춤], 성광수(1978)와 최석재(2013)에서는 지적, 이춘숙(1999)에서는 영역[설정], 박철우(2015)에서는 범위 한정이라는 의미를 설정한 바 있다. 먼저 이기갑(2001)이나 박호관(2007)에서는 ‘은/는’이 문장 구조 속에서 그것의 결합구를 부각시킨다거나 들추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이춘숙(1999)에서는 ‘은/는’이 결합구가 서술어에 이끌린 명사항임을 명시하는 영역[설정]의 기능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의미 규정은 일면 타당성이 있고 설명력도 충분하다.

그러나 ‘은/는’의 의미를 담화를 이루는 각 요소 간의 관계성에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은/는’의 담화 상의 기능이지 본질적인 의미라고 하기는 어렵다. 반면 성광수(1978)와 최석재(2013)에서는 특정 대상을 지적하는 기능을 한다고 하였으며, 박철우(2015)에서는 대상이나 범위 한정 기능을 한다고 하며, ‘은/는’ 결합구와 이의 대안집합 혹은 자매항과의 관계성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 논의와 유사하게 ‘은/는’의 본질적 의미를 ‘대상 한정’으로 보고자 한다.⁹⁾ 즉 ‘은/는’은 다음과 같이 화자와 청자 간에 환기되어 있거나 화자가 청자에게 환기시키고자 하는 정보 대상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9) 가: 스키 씨, 한국어 잘 하세요?

나1: 네, 말하기 잘 해요.

나2: 네, 말하기는 잘 해요.

(10) 가: 영수 씨, 미란 씨 자주 만나요?

나1: 네, 자주 만나요.

나2: 네, 미란 씨는 자주 만나죠.

나3: 네, 자주는 만나죠.

나4: 네, 만나기는 자주 만나죠.

위 (9)에서 나1의 대답은 청자의 질문에 대해 한국어 말하기를 잘한다는 명제적 사실을 청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나 나2는 ‘말하기’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를 잘함을 청자에게 알려주고 있다. ‘은/는’의 대상 한정 의미는 (10)을 보면 더욱 두드러지는데, 청자의 질문에 가장 중립적인 대답인 나1에 비해 나2~나4는 화자가 무엇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긍정 대답을 하는지에 따라 ‘은/는’과의 결합이 달라진다. 즉 가의 질문에 대해 나1은 전체 사실에 대한 긍정 대답인 반면, 나2는 ‘미란 씨’에 한정하여, 나3은 ‘자주’에 한정하여, ‘나4’

9) 본고에서의 ‘은/는’의 의미는 최석재(2013)이나 박철우(2015)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만 ‘대상 한정’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면 된다. 즉 ‘지적’은 ‘누가 가는데? 철수가’와 같은 문장에서의 ‘이/가’의 초점으로서의 지적의 의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며, 범위 한정은 ‘범위’가 주는 용어상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한정’으로 용어를 수정하였다.

는 ‘만난다’는 것에 한정하여 긍정하는 대답인 것이다.

이와 같이 질문에 대한 응답 발화에서 ‘은/는’은 긍정 혹은 부정의 대상을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 (11) ㄱ. P1: 근데 우리가 전에 얘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P2: 아 아뇨, {a. 그런 건/ b. 그런 거} 아니었어요, <세종 구어>¹⁰⁾
 ㄴ. 정은: 혹시.....아버지가 우는 모습 본 적 있으세요?
 동준: 글썽요....{a. 그런 모습은/ b.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요... <드라마1>
 ㄷ. P2: 그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같이) 들어도 안 힘들어요?
 P1: 일학년 {a. 과목은/ b. 과목} 별로 안 힘들어. <세종 구어>
 ㄹ. P1: 운동 좋아해요?
 P2: 아 {a. 좋아는/ b. 좋아} 하죠, 근데 잘 안 해요, <세종 구어>
 ㅁ. P1: 혹시 이 중에서, 말아톤::이란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a. 저는/b.
 저} 봤습니다, <세종 구어>
 ㅂ. 수현 : (옆에 앉으며) 너 여기 침 와 봐?
 지우 : 응. {a. 난/ b. 나} 방콕 시내 밖에 몰라. <드라마2>
 (12) ㄱ. P2: 어쨌든 결혼할 생각은 있군.
 P1: 어 생각은 있어 난. 안 할 생각은 없어. <세종 구어>
 ㄴ. P1: 당해 봐야 돼. 안 당하군 몰라 진짜.
 P2: 그래 그런 건 있어. 당해 봐야 돼. <세종 구어>
 ㄷ. P1: 아 나는 쉽게 안 사귀구 쉽게 안 헤어지기 때문에...
 P2: 해 봐. 재밌어져.
 P1: 아 재밌지 않아. 난 그렇게는 살기 싫어 내 성격상. <세종 구어>

위 (11 ㄱ, ㄴ)은 청자의 질문에 대한 부정 응답에서 ‘은/는’이 결합된 a와 ‘은/는’이 없는 각 b로 응답하는 경우, 후자는 선행 발화의 명제적 사실을 그대로 부정하고 있음에 반해 각 a는 결합 명사구 ‘그런 거, 그런 모습’으로 대

10) 본 연구에서는 구어 담화에서의 ‘은/는’을 살피고자 하였으므로 그 예시를 실제 사용된 구어 담화인 ‘21세기 세종계획’의 일상 대화에서 가져오거나, 드라마 대본 ‘옥탑방 고양이’와 ‘개와 늑대의 시간’에서 가져왔다. 그리고 그 출처를 각각 <세종 구어>, <드라마1>, <드라마2>로 표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출처 표기가 없는 예문은 필자가 논문의 전개를 위해 만든 예문임을 밝힌다.

상을 한정하여 부정하는 후행 술어가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11ㄷ~ㄹ)은 선행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긍정 응답에서 ‘은/는’이 긍정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은/는’이 없는 각 b의 응답과 비교하면, 화자는 ‘일학년 과목, 좋아한다, 저, 나’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그 한정된 대상의 경우에 한해 긍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또 (12)에서도 질문에 대한 직접적 응답이 아닌 청자 발화에 대한 동의 (12ㄱ, ㄴ)와 동의하지 않는(12ㄷ) 발화에서 ‘은/는’이 부가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응답 발화에 비해 동의나 동의하지 않는 대상이 좀 더 구체화되고 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상 한정 의 ‘은/는’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의문문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 (13) ㄱ. P1: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name1> 형이 그냥, 메일루 연락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연락하는 걸루, 했거든요 그까 {a. 연락처는 / b. 연락처} 아시죠? {a. 누군진 / b. 누군지} 아시는 거죠? <세종 구어>
- ㄴ. 동준: 근데 정은 씨, 그 {a. 가방은 / b. 가방} 뭐예요? 아까부터 정말 궁금했어. <드라마1>
- ㄷ. 동준: 그럼, 다시 물어봐도 돼요?
정은: 필요?
동준: {a. 나는 / b. 나} 남자친구로 어떠냐구요? 아직도 모르나?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인데.. <드라마1>
- (14)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체하기로 했다니, 물어보는 건데, {a. 그 쪽 어른들은 우리 정은이 알고 계신가요/ b. 그 쪽 어른들이 우리 정은이는 알고 계신가요?/ c. 그 쪽 어른들이 우리 정은이 알고는 계신가요?} <드라마1>
- (15) ㄱ. 정우: 아니 그럼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말이에요?
동준: 네.
정우: 경비는요?
동준: 회사에서 대는 겁니다. <드라마1>
- ㄴ. P2: 짜는 뭐야?
P1: 기계공학과요.
P2: 학교는?
P1: 연세대학교요. <세종 구어>

위 (13)에서와 같이 ‘은/는’이 부가된 각 a가 ‘은/는’이 없는 각 b에 비해 질문하고자 하는 대상을 좀 더 명확히 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4)에서와 같이 질문하고자 하는 대상이 ‘어른들, 정은이, 알다’ 중 무엇인지에 따라 ‘은/는’ 부가가 달라짐을 볼 때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15)와 같이 ‘은/는’은 맥락에서 후행 술어가 생략된 채 후행 술어 없이 질문의 대상만을 한정하여 ‘은/는(요)’ 형태로 질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은/는’이 대상 한정 의미의 의미를 가지므로 다음과 같이 소개나 설명 담화의 서술문에서 ‘은/는’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 (16) 가. PI: 저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소아 정신과에서 근무하는, 심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강의는, 주로 요즘에,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들의 발달,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세종 구어>
- 나. PI: 아~ 저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사학년 학생이구요, 이름은 ***이라고 합니다, <세종 구어>
- 다. PI: 예 일단 저는 제가 저도 완벽할 수 없죠. 저 저는 이제 거의 어찌 보면 이단이고 사이빈데요, 저 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의도 중요하죠. <세종 구어>
- (17) PI: 씨그마가 아니고 델타였나? 아무튼 애는? 표준 편차와 분산의 관계는? 표준 편차에다가, 제곱을 씌우면 제곱을 하게 되면은, 분산이 나왔었지,...그 다음에, 분산은, 뭐::~ 이 검은 점들의 분산에다가, 뭘로 나눠줘? 엠으로 나눠 줬단 말야... 인제, 엑스바가 들어가는 거야. 엑스바. 엑스바는 표본과 관련된 거, 그냥 엑스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모집단과 관련된 거. <세종 구어>

(16)에서와 같이 소개를 하는 상황에서는 소개를 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서술이 후행하게 되므로 소개 대상으로 한정되는 명사구에 ‘은/는’이 많이 결합하게 된다. (16가)에서는 ‘저’와 ‘오늘 강의’로 대상이 한정됨을, (16나)에서는 ‘저’와 그 다음에 ‘저의 이름’으로 대상이 한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6다)에서 보면 화자가 ‘저는, 제가, 저도’로 자가 수정을 하면서 ‘은/는, 이/가, 도’의 선택에 따른 화자의 양태를 드러내고 있다.¹¹⁾ 그리고 (17)

11) 즉 ‘저는’은 ‘저로 대상을 한정하여 서술하는 것이며, ‘제가’는 ‘제가 완벽하다’라는 명제적 사

과 같은 설명 담화에서 설명의 대상을 ‘표준편차와 분산의 관계, 분산, 엑스바’ 등으로 한정하면서 이에 대한 설명을 후행 발화로 이어가고 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은/는’은 명사나 부사, 부사구 등에 부가되어 화자와 청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혹은 화자가 청자에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진다.

3.2. 자매항의 전제와 함의

지금까지 ‘은/는’에 대해서는 ‘은/는’이 결합항과 자매관계에 있는 자매항을 전제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18) 전제: ‘는’과 같이 쓰이는 요소는 알려져 있거나(known) 담화에 등록이 되어 있다(registered).

‘X는’과 자매관계에 있는 요소가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있다.

단언: ‘는’과 같이 쓰인 요소만이 행위와 사건에 관련이 있다. <양인석 1973:88, 이기동 1981 재인용>

(19) ㄱ. (성질이 나쁘다) 얼굴은 예쁘다. <이남순 1996>

ㄴ. 나는 아침을 먹지 않았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사만 2002:184>

ㄷ. 옛날에 황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희자,이종희 2001>

ㄹ. A: 내 친구들(철수와 영희) 못 봤니?

B: 철수는 아까 도서관으로 가던데... <박철우 2015>

위 (18)에서와 같이 양인석(1973:88)에서는 ‘은/는’에 자매관계의 요소가 전제된다고 하였으며,¹²⁾ 이남순(1996), 홍사만(2002)에서는 (19ㄱ,ㄴ)처럼 ‘은/는’이 그와 자매관계에 있는 요소를 불러일으키고 이를 전제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 박철우(2015)에서는 (19ㄷ)의 경우 화청자에게 환기된 정보 전체를

실을 서술하며, ‘저도’는 다른 사람과 동일함의 함의를 가지고 대상을 서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2) 앞 절에서 설명한 ‘은/는’이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는 양인석(1973:88)에서의 단언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제로 한정하고 (19ㄹ)의 경우 화청자에게 환기된 정보 중 특정 대상을 화제로 한정한다고 하여 자매항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박철우(2015)에서의 입장과 동일하게 (19ㄹ)과 같이 담화 상에서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결합항과 대비되는 경우도 있으나, (19ㄷ)과 같이 자매항이 비명시적어서 결합항만을 한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¹³⁾

(20) P1: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든 생각은, 그까~ 세계화로 인해서, 민족성이나 이런 게 대두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위해 나타난 현상이란 얘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P2: 아:, 금 세계화를 위한 거는 누가 주첸데? <세종 구어>

(21) P1: 우리 엄마는 은근히 말을 그렇게 하는데 봐 주구 싶어 하시는 거 같애.

P2: 응. 아냐 우리 엄만 절대 아닌 거 같애. 걱정하지 말라구.

P1: 아냐 그러면서 나중에 맞벌이하면 다 봐 줘.

P2: 에이 몰라. 나는 아직까지는 결혼은 진지하게 한 번밖에 생각 안 해 봤어.

<세종 구어>

위 (20)에서는 ‘은/는’과 결합한 요소와의 자매관계 요소가 담화 상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즉 (20)에서는 ‘내가 한 생각, 금 세계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후행 기술을 하고 있다. 반면 (21)에서는 ‘우리(P1)엄마’와 자매관계의 ‘P2의 엄마’나, ‘나(P2)’와 자매관계의 ‘P1’이나 다른 사람이 담화에 드러나고 있어 자매항이 명시적이다. 또 ‘아직까지는, 결혼은’도 담화에 명시적인 자매항이 드러나지는 않으나 ‘앞으로, 취업이나 다른 것’ 등 자매관계에 있는 요소를 화청자가 상식적으로 떠올릴 수 있어 자매항의 상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자매항이 상정되는 경우에는, 서술이나 언급의 대상이 결합항만으로 한정되므로 맥락에 따라 자매항을 배제하는 대조적 함

13) 최규수(2016)에서도 ‘은/는’의 전제로서 나머지항(자매항)이 범위에서 배제됨을 전제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머지항의 배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나머지항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하여 ‘은/는’의 의미를 둘로 나누면서, 나머지항의 배제인 대조의 의미가 나머지항의 포함인 주제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고 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 본고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기본 의미를 한정으로 보고, 대조의 의미는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가지게 되는 함의이며, 주제는 한정 의미로 인한 담화 기능으로 보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축을 가지거나, 자매항에 대한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함축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 (22) ㄱ. P1: 그냥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엄청 보수적이야.
 P2: 가족은 보수적인데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세종 구어>
 ㄴ. P1: 그 누나는 우리 오빠 별루 안 좋아했어 그냥. 좋은 친구는 되는데 애인으로선 아니었어. <세종 구어>
 ㄷ. P1: 내 동생도 뭐~ 밖에 나가선 그렇게 주먹 안 쓰구 땡겨. 집안에서만 주먹 휘둘르지. <세종 구어>
 ㄹ. P2: 밥두 아빠가 차리구 설거지두 아빠가 한다구? 자랑이야?
 P1: 아니 내 할 일은 잘 해. <세종 구어>
 ㅁ. P1: 나는 우리 아빠가 옛날에 근까 아빠 엄마가 직장 나가시기 전에는 일을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안 하실 줄 알았어...근데 막상 나가니까 아빠가 되게 일을 많이 하셔. <세종 구어>
- (23) ㄱ. 거기다 내가 난시도 있고, 눈은 진짜 안 좋아 내가. <세종 구어>
 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비언어적 특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종 구어>

위 (22)에서는 맥락에서 자매항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 이 경우 ‘은/는’은 자매항 배제의 대조적 함축을 가진다. 즉 (22ㄱ)에서 ‘전에는’은 ‘지금’의 배제와 지금과는 다름을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3)에서도 그러하여 (23ㄱ)에서는 ‘눈 외의 다른 것은 좋지만’, (23ㄴ)에서는 ‘비언어적 특징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나’ 등 자매항 배제의 대조적 함축을 가지거나 적어도 ‘눈 외의 다른 것’이나 ‘비언어적 특징 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배제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또 ‘은/는’은 전영철(2005), 임동훈(2014)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매항에 따라서 상위값 부정의 척도 함축을 가지기도 한다.

- (24) ㄱ. P1: 일단 oo대는, oo대 정도는 갈 수 있는 거 아냐? <세종 구어>
 ㄴ. P1: 한 삼백 치면은, 오 학기는 다닐 수 있네? <세종 구어>
 ㄷ. P1: 일단 한글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집 전화번호랑 주소 정도는 외을 줄 알아야 되고... <세종 구어>

ㄹ. P1: 하기야, 이들은 쉬어야 되겠지, <세종 구어>

위 (24ㄱ)에서는 ‘oo대학’보다 상위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없지만 ‘oo대학’을 포함하여 그보다 하위에 있는 대학은 갈 수 있음을 함의하며, (24ㄴ)에서도 ‘전화번호나 주소보다 어려운 것’은 배제하더라도 이를 포함하여 이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외울 줄 알아야 함을, (24ㄷ)에서도 삼사일은 불가하더라도 하위의 하루나 이들은 쉬어야 함을, (24ㄹ)에서도 육 칠학기는 다닐 수 없으나 오 학기를 포함하여 그 이하의 학기는 다닐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매항을 배제하거나 혹은 최소한 자매항의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할 때 ‘은/는’을 선택하게 되어, ‘은/는’의 사용에서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다.

(24) ㄱ. 가: 그 남자 어땠어?

나: 성격은 좋더라.

가: 뭐? 성격은? 그럼 얼굴은 별로란 거야?

ㄴ. 황교안 권한대행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 대신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은 대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이 명확하게 불출마를 선언 하라고 요구하자, 직접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고 합니다.¹⁴⁾

위 (24)에서 ‘은/는’의 선택으로 드러나는 화자의 양태적 의미로 인해 이러한 화자의 태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거나 이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은/는’이 지니는 척도 함축으로 인해 화자는 ‘은/는’의 결합항이 화자가 가정한 최소선임을 드러내는 화자의 양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25) 가: 야 그래도 결혼을 했으면 아침밥 차려줘야지.

나: 아침밥? 아침밥 차려 주면 다 해 주는 거다.

위 (25)에서 화자 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침밥을 차려주는 것’을 아내가 해야 하는 의무의 최소선으로 가정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은

14) 출처: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3/2017012390218.html

/는'이 결합항만을 한정하여 언급함으로 인해 이와 자매관계에 있는 자매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맥락에 따라 배제함으로써 대조적 함축이나 척도 함축을 유발하며, 이러한 함축으로 인해 ‘은/는’을 사용함에 있어 화자의 사건에 대한 태도가 드러난다. 이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6) ㄱ. P2: 남자 친구 몇 살인데?

P1: 한 살 한 살 많아요.

P2: 한 살? ... {a. 군대/ b. 군대} 갔다 왔어? <세종 구어>

ㄴ. P2: 그런 게 또 있지. 기본적인 건 다 많이 배워 두는 게 좋아. 남자 친구가: {a. 공부/ b. 공부} 잘 하나?

P1: 아: 잘 한 거 잘 해요. <세종 구어>

ㄷ. 동준: 안녕하셨습니다?

아버지: 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여기까지 오셨는데 {a. 식사/ b. 식사} 하고 가시죠,,, <드라마1>

ㄹ. 아무리 힘들어도 {a. ??식사/ b. 식사는} 해야지.

위 (26ㄱ,ㄴ)의 각 b에서는 ‘은/는’의 자매항 인식과 척도 함축으로 인해, 남자 친구가 ‘군대에 다녀왔는지’, ‘공부를 잘하는지’의 명제적 사실 확인 외에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군대 정도는 다녀와야 함’ 혹은 ‘(다른 것은 몰라도) 공부 정도는 잘 해야 함’의 화자의 명제 내용에 대한 태도와 판단이 드러난다. 또 (26ㄷ)에서도 ‘은/는’의 척도 함축으로 인해 a와 달리 b에서는 화자가 할 수 있는 권유 중 ‘식사’가 최소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26ㄹ)에서와 같이 맥락 상 척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은/는’이 부가되지 않은 a가 부자연스러움을 보면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결합항만을 한정하는 ‘은/는’의 의미로 인해 청자의 발화를 부정하는 경우 ‘은/는’은 화자의 명제 부정을 완화하는 발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27) ㄱ. 가: 6월쯤 호주 여행을 가 보려고 하는데 그때쯤 호주 날씨가 좀 추울까요?

나: 글썄요, {a. 춥지는/b. 춥지} 않을 거예요.

ㄴ. P1: 뭐 ~ 물론 어느 한 상황의 일면만 보고서 저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는 없죠. <세종 구어>

ㄷ. PI: 이미 들어와서 우리말처럼 되어 있는 거를 굳이 어색하게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세종 구어>

ㄹ. PI: 그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는데, 아 저는 침에 입을 때, 그래 이러면서 막~ 이랬거든요? <세종 구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 발화에 대한 부정(27ㄱ)이나 담화 상 전제된 명제의 부정(27ㄴ, ㄷ)에서 명제 내용 전체의 부정이 아닌 특정 요소에 한정된 부정을 함으로써 명제에 대한 화자의 완곡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4. 보조사 ‘은/는’의 담화에서의 기능

4.1. 화제와 담화의 결속

앞선 연구에서 ‘은/는’의 의미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 온 것 중의 하나가 화제로서의 기능이다. 그러나 화제로서의 기능은 ‘은/는’이 지니는 대상 한정 의미와 문두성으로 인해 ‘은/는’ 결합항이 가지게 되는 담화에서의 기능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¹⁵⁾ 즉 보조사 ‘은/는’은 대상 한정 의미로 인해 다음과 같이 문두에서 담화의 화제 기능을 하게 되며, 한 문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담화에 걸쳐 화제로 기능할 수 있다.¹⁶⁾

(28) ㄱ. PI: 근데 김장김치는 진짜 생김치가 진짜 맛있잖아. 재료 많이 들어가 가지고. 뜨거운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캡인데. 요즘에는 가족들이 없구 그

15) ‘은/는’만이 주제를 표지하는 조사가 아님에 대해서는 성기철(1985), 박승윤(1986), 이춘숙(1999), 임동훈(2012), 박호관(2007), 최석제(201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16) 박승윤(1986)에서도 ‘은/는’뿐 아니라 ‘도’ 등 한정사(delimiter)가 붙은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날 때는 그 명사구의 지배 영역은 문장 이상의 담화에 걸치며, 이들 명사구는 담화 주제(discourse topic)가 되며, 이러한 담화 주제로 이끌리는 문장의 집합체를 주제 담화라고 하였다. 이렇게 한정사가 담화 전체와 관련됨은 격조사는 절의 경계를 넘지 못하나 한정사는 절의 경계를 넘을 수 있음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철수를 설득하기 쉽다’에서 ‘철수를’은 [철수를 설득하다]라는 절의 경계를 넘지 못하나 ‘철수는 설득하기 쉽다’에서 ‘철수는’은 [철수를 설득하다]라는 절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이다.

러니까 엄마가, 집에서 잘 안 하고.... <세종 구어>

- 나. PI: 존 왓슨은 당시에 학회를 떠나서, 광고계로 자리를 옮겼지만, 여전히 이 운동에 선두에 서 있었죠. 광고야말로 인간의 행동이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얻은, 정보와 관점을, 어~ 그대로 가지고, 광고계로, 뛰어들었던 거죠. <세종 구어>
- 디. PI: 주제 선정을 어~ 주제를 이렇게 선정하게 된 동기는요, 먼저, 휴대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서 다양한 사용자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함께, 어~ 씨비쓰 업체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분화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종 구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 담화나 발표, 강연 등의 담화에서 화자는 ‘은/는’으로 화제가 되는 것을 한정하여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설명을 여러 문장으로 이어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는’이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므로, 대상을 한정한 후 이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는 화제의 기능과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는’은 선행 발화와 후행 발화를 화제로 이어주는 결속의 기능도 하고 있다.¹⁷⁾

- (29) 가. PI: 옛날에, 한 왕과, 그::~ 착한 왕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왕비가, 그::~ 애기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딱 태어났는데, 으~ 그 아기는 얼굴이 하::양구, 피부가 눈 눈처럼 고왔대요. <세종 구어>
- 나. PI: 어~ 옛날에 어느 서양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는 어~ 아버지와 그 다음에 어머니와 딸 셋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와 딸 둘은 신데렐라의 친엄마와 친언니가 아니었어요. 음~ 이들은 음::~ 이들은 신데렐라::의 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새로운 아버지가 새로 데리고 온 계모였어요. ① 이 엄마는. 그리고 ② 계모가 그~ 자기의 딸을 둘을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는데 음~ 신데렐라는 그 위에 있는 언니 두 명보다 훨씬 이쁘구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아이였어요. <세종 구어>
- 디. PI: 네 그러면은, 바로 이십대 이후 여성 씨비쓰에, 이제 특징인,

17) 이러한 ‘은/는’의 결속 기능에 대해, 최규수(1987)에서는 ‘은/는’이 문장과 문장을 의미 통어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으며, 임동훈(2012)에서도 ‘은/는’이 표시하는 주제는 이전 담화의 주제와 동일한 주제가 아니라 전환된 주제, 상위 주제에서 파생된 주제, 초점 연쇄 주제를 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 바 있다.

<unclear>그리고</unclear> 공통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여성을 위한 상품을 강조하였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화면을 이제 딱 보면은, 우리가, 사실 <unclear>이케</unclear> 딱 바로 느낄 수 있었는데,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 같은, 감성적 분위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감성적 분위기를 사용했던 경우는, 이제 바로 다른::, 다른 대상층을 위한 써비쓰들과, 또 어떤 <unclear> 차별점... <세종 구어>

위 (29ㄱ, ㄴ)의 예시는 ‘은/는’의 화제성과 관련한 많은 논의에서 인용되어 왔던 예시이다. 즉 이야기 담화에서 처음 제시된 정보가 ‘이/가’로 나타나며, 이후 구정보가 ‘은/는’으로 실현되는 대표적인 예문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은/는’의 사용은 이러한 구정보성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화자가 앞서 제시된 정보를 화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⁸⁾ 즉 (29ㄱ)에서 ‘왕과 왕비가 살고 있었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 중 ‘아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아기는’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9ㄴ)에서도 그러하여 ‘한 가정이 있고’, ‘그 가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그 가정의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 중 어머니와 딸들’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은/는’이 선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29ㄴ)의 ①과 ②에서와 같이 화자는 ‘새엄마’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이 엄마는’을 선택했다가 다시 이야기 담화의 사건 기술을 위해 ‘계모가 딸을 데리고 왔다’고 자기 수정 발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 제시 정보 중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이를 화제화하여 담화를 진행하는 경우는 (29ㄷ)과 같은 강의나 발표 담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다음은 ‘은/는’이 화제화할 대상을 한정하므로 담화 전개와 관련하여 결속 기능을 하기도 한다.

- (30) ㄱ. PI: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인데, 원래 할아버지두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내가 고삼 때 돌아가셨고, 음 아빠 엄마 나 오

18) 앞선 선행 연구에서도 구정보성과 ‘은/는’은 관련성은 있으나 필연적이지는 않다고 하였다. 즉 이야기 담화에서 (28ㄴ)에서와 같이 ‘계모’가 앞서 제시되어 이가 구정보이더라도 후행 발화에서 ‘계모는’, ‘계모가’ 등으로 ‘은/는’뿐 아니라 ‘이/가’도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뻘데, 소개할 거까지두 없지만, 그냥 우리 가족은 전체적으로, 엄청 보수적이야. 나두 되게 보수적인데. 쯤 술술 풀리는 편이고. 근까 학교 갈 때두:: 근까 우리 오빠는 쯤 공부를 잘 하는 편이었구... <세종 구어>

- 나. P1: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만한 마음이지요, 감사하는 것이,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리석음과, 인식력의 부족인데요.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해서, 감사해야 하는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재치가, 부족한 건데요, 이거는 창의력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지요... <세종 구어>

이미 많은 선행 논의에서 언급되어 온 바와 같이 위 (30ㄱ)과 같은 소개 담화에서 ‘은/는’이 화제와 관련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개 담화의 경우 소개를 할 대상을 한정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담화에서 ‘은/는’의 사용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30나)에서도 담화 전개 of 주요 표지인 ‘첫째, 둘째’ 등의 서수사에 ‘은/는’이 부가되어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하나를 한정하여 차례로 기술하고 있다. 물론 (30)에서의 ‘은/는’은 필수적이지 않아 ‘은/는’이 없이 나타날 수도 있다.¹⁹⁾ 그러나 ‘은/는’의 부가는 화자의 선택이며, 화자가 전달내용을 좀 더 분명하고 일관되며 서로 간에 관련 있고 좀 더 짜임새 있는 구성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은/는’으로 담화의 특정 요소를 한정해 줌으로써 화자는 청자에게 앞으로 무엇을 한정하여 기술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 주어 담화 구성력을 높이고 청자의 이해를 돕게 되는 것이다.²⁰⁾

19) 즉 위의 발화를 다음과 같이 변형해서도 발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27) ㄱ. 우리 가족이 아빠 엄마 오빠 나. 이렇게 네 명이야. 할아버지도 같이 사셨는데 할아버지가 나 고3때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주 보수적이야...

나. 첫 번째, 오만한 마음이지요,.... 두 번째는, 어리석음과, 인식력의 부족인데요.... 셋째로, 재치가, 부족한 건데요,....

20) 최규수(1998)에서는 문두의 ‘은/는’ 성분이 담화의 구성과 관련된 기능을 가지며, 엮음, 담화 전개, 주의 환기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박철우(2003:47-48)에서도 화제를 연결부라 하고 있다. 그리고 화제는 청자에게 문장이 운반하는 정보가 도입될 지식저장소 내의 주어진 주소로 가도록 지시한다는 점에서 주소 지시자라고 한 바 있다.

4.2. 초점화²¹⁾

보조사 ‘은/는’과 관련하여 이기동(1981)에서는 화청자의 공동의식 영역 속에 들어와 있는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달라는 화자의 지시이며, 최석재(2013)에서는 ‘은/는’이 해당 명사구를 특별히 지적하는 기능이 있으며, ‘은/는’은 [+정보가치성]이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은/는’이 특정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담화에서의 초점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²²⁾

- (31) ㄱ. 정은: 나혜련, {a. 넌/ b. 너/ c. 니가} 여기 웬일이냐? <드라마1>
 ㄴ. P2: {a. 지혜는/ b. 지혜} 점점 예뻐지네.
 P1: 별말씀을요.
 P2: {a. 남자 친군/ b. 남자 친구} 있어? <세종 구어>

위 (31 ㄱb)와 같이 조사가 없는 중립적 예문에 비해 (31 ㄱa, c)와 같이 조사가 부가된 경우에는 ‘너’가 초점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³⁾ 다만 ‘은/는’과

- 21) 정희자(2008:101)에서는 절이나 문장 안에 있는 특정한 부분에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어떤 요소를 첨부하는데 이를 초점화 부가어(focusing adjunct) 또는 초점어(focuser)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는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하고 ‘이것만’을 가리키는’ 요소인 alone, exactly, just, only 등과 같은 제한적 부가어와 ‘특히 이것’ 혹은 ‘이 외에 이것도’를 나타내는 especially, particularly, specifically/ also, again, too 등과 같은 추가적 부가어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한국어 보조사 ‘은/는’은 추가적 부가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 22) 이러한 초점화 기능과 관련하여 최규수(1998)에서도 ‘은/는’명사구가 담화 구성과 관련하여 주의 환기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한 바 있으며, 신호철(2001)에서도 이를 시점과 관련한 화자의 심리적 태도와 관련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즉 시점 옮김을 통해 담화에서 ‘은/는’의 후행 발화에 주의를 집중하게 하여 후행 발화의 정보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이는 한송화(2016b)에서 언급한 서사 담화에서의 주요 사건 기술에서 ‘이/가’에 의한 사건보다 ‘은/는’에 의한 사건에 좀 더 주위가 집중되어 전정정보와 관련성이 많음과도 관련된다 하겠다. 또 전영철(2005)에서도 ‘은/는’이 현저성(prominence)의 자질을 가진다고 하여 문장의 다른 요소와 구분된다고 한 바 있다.
- 23) 초점화는 다음과 같은 예시에서 ‘은/는’에 의한 초점화가 불가능함을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다.
 예) P1: 농구만 하고요?
 P2: 응. 뭐~ 애인이 없으니까 뭐~.
 P1: 음:: 왜 오빠 여자 친구 없어요::, <세종 구어>
 위에서 화자 P1은 P2의 애인이 없다는 발화에 대해 애인이 없는 이유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

‘이/가’의 함축적 의미가 다름으로 인해 이들 두 예문에서의 함의가 다르기는 하나, 조사가 부가됨으로써 초점화가 이루어짐은 명백하다.²⁴⁾ 이는 (31-)의 조사 없이 사용된 각 **b**와 달리 ‘은/는’이 부가된 각 **a**에서도 그러하여,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은/는’이 명시적이든 비명시적이든 자매항 중 하나로 대상을 한정하게 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담화 상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은/는’의 대상 한정으로 인한 담화 상에서의 초점화 기능은 다음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 (32) ㄱ. P2: 아:: 비가 이렇게 오냐. <pause dur="17.6"/> ① 저녁은 먹었어?
 P1: 저녁이요? 네:: ② 오빠 영화 많이 보세요?
 P2: 영화? 어 많이 보지.
 P1: 오빠두? 아::, ③ 오빠는 주말에는 가세요 회사? <세종 구어>
 ㄴ. P1: 남자 친구랑도 (녹음) 했어요. 몇 번 해 가지구::, 한:: 두 번 두세 번 했냐?
 P2: 응.
 P1: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은 안 되니까, <pause dur="3.2"/>
 P2: 음.
 P1: 그랬<pause/>죠::,
 P2: <vocal desc="들어마시는숨"/> 핸드폰 이쁘다,
 P1: 핸드폰이요?
 P2: 응, <pause/> 싸요네?
 P1: 네. ④ 오빠 영화는 많이 보세요?
 P2: 영화? <세종 구어>

고 있다. 이때 ‘왜 오빠 여자 친구 없어요?’라고 ‘오빠’에 한정하여 이를 초점화하여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나, ‘여자 친구’에 한정하여 이를 초점화한 ‘왜 오빠 여자 친구 없어요?’라는 질문은 불가능하다. 이는 ‘여자 친구가 없다’는 명제 전체가 질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내부 요소인 ‘여자 친구’만을 한정하여 초점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24) 즉 ‘넌 여기 웬일이냐’의 경우에는 ‘너’와 세로 관계에 있는 자매항이 함의되어 다른 사람도 왔음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면서 ‘너’에 초점을 부가하며, ‘네가 여기 웬일이냐’의 경우에는 세로 관계의 함의는 없이 순수히 ‘너’의 속성에 대한 함의(여기에 나타날 가능성이 없음)만을 더 강화하고 초점화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 차이는 ‘넌 또 여기 웬일이냐’에서 부사 ‘또’가 ‘은/는’의 함의를 더 강화하여 세로 관계의 자매항을 좀 더 명확히 함에 반해, ‘네가 또 여기 웬일이냐’에서 부사 ‘또’는 후행 술어의 반복을 명확히 하고 있어, 부사의 영향권(scope)에도 달리 나타남으로 확인할 수 있다.

위 (32ㄱ)에서 화자와 청자가 ‘저녁, 영화, 회사’로 화제를 옮겨가며 대화를 하고 있다. 이때 ①③과 같이 ‘저녁은, 오빠는, 주말에는’ 등으로 ‘은/는’을 이용하여 대상을 한정하고 초점화하여 질문하기도 하고 ②와 같이 영화를 보는지의 명제적 사실만 질문하기도 한다. 이는 (32ㄴ)의 ④와 대비되는데, (32ㄴ)에서는 화자와 청자가 담화를 이어감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화제를 ‘녹음, 핸드폰, 영화’ 등으로 옮겨가며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으면서, 화자 P1이 ④와 같이 영화를 보는지의 명제적 사실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로 대상을 한정하여 이를 초점화하고자 하는 화자의 선택이 드러나고 있다.²⁵⁾

이러한 담화에서의 ‘은/는’의 초점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청자의 선행 발화에서 특정 부분을 한정하여 확인하거나 이를 담화에서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으로도 알 수 있다.

- (33) ㄱ. 가: 그러니까 나중에 돈 페이지 않으려면 계약서 같은 걸 써 놓아야지.
 나: 계약서는 썼죠. 근데 그게 공증을 안 받으면 소용이 없다잖아요.
 ㄴ. P1: 요즘 공무원 하는 사람 많잖아. 안정적이고.
 P2: 공무원이 제일 안정적이기는 하죠, 여자가 하기에든 그렇고. <세종 구어>
 ㄷ. P1: 뭐가 괴로운 제일 괴로운 거는 지금 남자친구와의 사이가 되게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컨태기긴 확실히 컨태기거덩? <세종 구어>
- (34) ㄱ. 경민: 그제 너한테 그렇게 소중한 거냐?
 정은: 철사쪼가리가 소중하긴 뭐가 소중한? 밥이나 차려... <드라마1>
 ㄴ. 엄마: 친구 사이라며, 아무 사이 아니라며!
 정은: 누구요, 경민이요? 그럼 친구지.
 엄마: 친구는 얼어죽을 친구, 아유 시끄러, 국 두어 가지 끓여와. <드라마1>
 ㄷ. 정은: 경민이 할아버님이신 줄도 모르고 전에 실례가 많았습니다.

25) 이러한 ‘은/는’의 초점화는 일상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말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말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맥락에 따라 자매항이나 척도 함축에 따른 화자의 양태가 부가되기도 한다.

- ㄱ. 몸 좀 어때? / 몸은 좀 어때?
 ㄴ. 점심 먹었어? / 점심은 먹었어?
 ㄷ. 잠 잘 주무셨어요? / 잠은 잘 주무셨어요?
 ㄹ. 이사 잘 했어? / 이사는 잘 했어?

- 할아버지: 실례는 무슨, 피차일반이지. <드라마1>
 ㄹ. 정은: 야, 너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지고 그래?
 경민: 뒤지기는. 뭐 좀 찾아보니까 있던데 뭐... <드라마1>
 (35) ㄱ. 동준: 내꺼 좀 더 먹을래요?
 정은: 실장님은 제가 뭐 돼진 줄 아세요? <드라마1>
 ㄴ. 할아버지: 공부하는 놈이 돈 쓸 일이 뭐가 있어?
 경민: 됐어요, 관둬요. 에이씨.
 할아버지: 아니, 저놈이..
 할머니: 경민아, 밥 안 먹어? 거, 좀 해주지, 당신은. <드라마1>
 ㄷ. 경민: 해련아, 물 좀... (정은이 물 주려고 하자)
 해련: 무식하긴, 지금 물 먹으면 안 된단 말야. <드라마1>
 ㄹ. 경민: 연필을 오래 잡고 있었더니 손이 아파서 숟가락을 못 들겠어.
 정은: 엎살은. <드라마1>

위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자의 선행 발화에서의 특정 부분 혹은 명제 사실에 한정하여 이를 초점화하여 부각시키면서 동의 내용을 후행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34)에서와 같이 선행 발화에 대한 비동의 내용을 후행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청자의 선행 발화에 대한 비동의 내용이 후행하는 경우에는 (34ㄷ, ㄹ, ㄱ)과 같이 후행 발화 없이 ‘은/는’만의 부가만으로도 선행 발화에 대한 비동의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35ㄱ)과 같이 ‘은/는’ 뒤에 질책의 내용이 후행하는 경우 후행의 구체적인 질책 내용이 생략된 채 (35ㄴ, ㄷ, ㄹ)과 같이 ‘은/는’만으로도 청자의 행위에 대한 질책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5. 결론 및 한국어교육 문법을 위한 제언

본고에서는 보조사 ‘은/는’의 의미와 담화에서의 기능을 실제 구어 담화에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이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출하고 이의 담화에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은/는’은 명사나 부사, 부사구 등에 부가되어 화자와 청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혹은 화자가 청자에게 활성화시키고 싶은 대상을 한정하는 의미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정 의미는 명시적

이든 비명시적이든 자매항을 불러일으키며 이러한 자매항의 존재로 인해 대조적 함축이나 척도 함축을 가지게 되어, 화자가 ‘은/는’의 자매항을 배제하거나, 적어도 자매항의 배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또 맥락에 따라서는 ‘은/는’ 결합항이 화자가 가정한 최소 선임을 드러내는 화자의 양태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 자매항이 비명시적이어서 대조적 함축은 가지지 않더라도 한정으로 인한 화자의 명제에 대한 완곡적 태도를 드러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할 때 ‘은/는’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주장을 좀 더 완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은/는’은 대상을 한정하므로 화제가 될 가능성이 많았으며, 결합항이 담화 전체의 화제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담화의 세부 화제로서 담화 결속에 관여하기도 한다. 또 ‘은/는’의 대상 한정으로 인해 ‘은/는’ 결합항은 정보성을 부가 받게 되어 담화 상에서 초점화 기능을 하며, 이러한 초점화 기능으로 인해 ‘은/는’ 만으로도 비동의나 질책 등의 화행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보조사 ‘은/는’을 대상으로 이의 추상적 의미를 파악하고 이 의미가 다양한 담화 맥락에서 나타내게 되는 함의나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나 판단, 그리고 담화에서의 기능을 살펴보았다. Batstone(1994/2003:27)에서는, 특정 형태의 매우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문법 의미가 있다면, 이것이 맥락 속의 특정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문법적 의미가 있으며, 실제 맥락마다 다르게 드러나는 특별한 문법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이들 세 수준의 적절한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교수를 위한 문법에서는 매우 일반화되고 추상화된 문법 지식과 함께 언어 사용에 있어서 화자가 왜 이러한 특정 문법을 선택하는지, 이에 드러나는 화자의 관점은 무엇인지, 또 이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지 등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⁶⁾ 따라서 본고에서의 보조사 ‘은/는’의 의미 규정과 구어 담화에서의 사용 양상에 대한 분석은 이러한 ‘사용으로서의 문법’을 위한 하나의 시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즉 추상화되고 일반화된 문법적 의미와

26) Batstone(1994/2003:33-45)에서는 이러한 예시로 영어의 수동태가 책임지는 일을 피하고 책임을 바꾸는 데 쓰일 수 있으며, 과거형이 사회적 거리감이나 공손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시제가 사건에 대한 화자의 특정한 관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함께 이것이 특정 맥락에서 가지게 되는 사용상의 함의나 기능을 살핌으로써 학습자가 목표 문법을 모어 담화에서의 사용과 유사하게 사용하도록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로 돌아가 보면, 서론에서 대조와 화제의 두 가지 대립적 의미로 ‘은/는’의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설명이 되지 않았던 한국어교육용 사전에서의 많은 예시가 본고에서 제시한 대상 한정과 자매항의 함축적 의미, 그리고 이러한 함의로 인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설명이 될 수 있다. 또 초급 한국어 교재에 나타나는 대화문(7)에서의 ‘은/는’ 명사구에 대해서도 ‘이/가’ 명사구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은/는’에 의한 대상 한정인지 아닌지에 따라 화자의 ‘이/가’ 혹은 ‘은/는’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초급 한국어교재 대화문(8)에서의 ‘은/는’ 명사구에 대해서도 화자가 자신을 소개할 때 소개해야 할 대상을 한정하고 이에 대한 서술이 후행하기 때문에 ‘은/는’이 많이 사용되며, 질문에 사용하는 ‘은/는’ 명사구의 대상 한정과 자매항의 함축에 대해서도 설명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교육을 위한 문법은 문법 항목의 추상적인 의미 기능을 사전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추상적 의미가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드러나는지를 과정적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즉 한국어교재나 한국어교육용 사전이나 문법서 등에서 ‘은/는’의 의미를 화제와 대조, 강조의 의미로 다의적으로 분리하여 기술하고 교수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은/는’의 통합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대조와 화제로 분리한 문법 의미 교수는, 학습자들로 하여금 ‘은/는’의 통합적 의미로부터 기인되는 언어 사용에서의 화자의 함축적 의미나 태도, 그리고 담화에서의 기능을 연계하여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그럼으로써 교수된 문법적 지식을 교수 상황과는 다른 다양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기르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어교육 문법으로서 추상화된 문법이 다양한 담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내게 되는 기능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많은 연구들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강현화 외(2016), 한국어 교육 문법, 한글과크.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인을 위한 한국어문법 2,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미형(2011),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제18권 3호, 담화·인지언어학회, pp23~64.
- 김미형(2015), “조사 ‘은/는’의 정체성 - 문법서와 교재에서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 한말연구 제38호, 한말연구학회, pp55-95.
- 김수정, 최동주(2013), “소설 텍스트에서의 주어의 실현 양상 -박완서의 소설 “그 가을의 사흘 동안”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62호, 한민족어문학회, pp37~69.
- 김영일(2016), “한국어교육을 위한 ‘은/는’의 특성 재고찰”, 국어교육 제155권, 한국어교육학회, pp217~262.
- 김정숙, 남기춘(2002),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방법 - ‘이/가’와 ‘-은/는’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13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pp27~45.
- 김홍수(2006), “소설의 시점과 관련 문법 현상”, 어문학논총 제25권1호, 국민대학교어문학연구소, pp53~66.
- 남기심(1972), “주어와 주제어”, 어문학 제26집, 한국어문학회, pp128~131.
- 남기심, 고영근(1985/2011),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승윤(1986), “담화의 기능으로 본 국어의 주제”, 언어 제11권 1호, 한국어언어학회, pp1~15.
- 박철우(2015), “보조사의 기능과 정보구조”, 국어학 제73집, 국어학회, pp269~307.
- 박호관(2007), “문장 생성의 이중 구조에서 본 조사 ‘-는’의 기본적인 의미 기능”, 우리말글 제39호, 우리말글학회, pp91~116.
- 성광수(1978), “체인 접속과 공격”, 한글 제162호, 한글학회, pp143~158.
- 성기철(1985), “국어의 주제 문제”, 한글 제188호, 한글학회 pp65~90.
- 신호철(2001), “시점과 특수조사의 상관성”, 어문학 제73집, 한국어문학회, pp91~118.
- 오현아(2011), “화제-초점 중심의 텍스트 구조 유형화에 대한 고찰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제87권, 한국국어교육학회, pp165~194.
- 유동석(1998), “국어의 격 중출 구성에 대하여”, 국어학 제31집, 국어학회, pp307~337.
- 이기갑(2001), “사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는’과 ‘을랑’”, 국어학 제37집, 국어학회, pp149~175.
- 이기동(1981), “언어와 의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구 말) 제6집.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pp29~50.
- 이남순(1996), “특수조사의 통사기능”, 진단학보 제82집, 진단학회, pp217~235.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 국어학 제22집, 국어학회, pp397~424.

- 이정희(2003), 한국어 학습자의 표현 오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덕(2014), “한국어교육에서 주어와 주제 구분에 대하여”, 문법교육 제2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pp239~268.
- 이춘숙(1999), “토씨 {가}와 {는}의 의미 기능, -자리 개념과 영역 개념에서 본-”, 한글 제243호, 한글학회, pp177~209.
- 이해영(2004), “한국어 교재의 문법 영역 분석 -‘이/가’와 ‘은/는’을 대상으로-”, 문법교육 제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pp231~256.
- 이희자, 이종희(2001), 한국어 학습용 어미 조사 사진, 한국문화사.
- 임동훈(2004), “한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제43집, 국어학회, pp119~154.
- 임동훈(2012), “‘은/는’과 종횡의 의미 관계”, 국어학 제64집, 국어학회, pp217~271.
- 임홍빈(1998),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 문법의 심층 2, 태학사, pp208~281.
- 전영철(2005), “한국어의 대조초점”, 언어학 제43호, 한국언어학회, pp215~237.
-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제274호, 한글학회, pp171~200.
- 정희자(2009), 담화와 문법, 한국문화사.
- 정희원(2001), 한국어의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정보 구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채완(1975), “助詞 ‘는’의 意味”, 국어학 제4호, 국어학회, pp93~113.
- 최규수(1987), “주제 표지 ‘는’에 대하여”, 문창어문논집 제24집, 문창어문학회, pp75~98.
- 최규수(1998), “접임자말과 주제어”, 우리말연구 제8집, 우리말학회, pp165~179.
- 최규수(2004), “주제어와 대조초점-어순 및 강세와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제15집, 우리말학회, pp149~172.
- 최규수(2016), “보조조사 ‘는’의 의미 정보 분석”, 우리말연구 제44집, 우리말학회, pp27~55.
- 최동주(2012), “‘은/는’과 ‘이/가’의 출현 양상”, 인문연구 제6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5~58.
- 최석재(2013), “조사 ‘은/는’과 ‘이/가’의 의미”, 우리말연구 제35호, 우리말학회, pp82~111.
- 최현배(1937/1983),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한송화(2016a), “한국어 학습자의 보조사 ‘은/는’의 사용 양상과 오류 연구”, 어문론총 제70호, 한국문학언어학회, pp111~151.
- 한송화(2016b), 이야기 담화에서의 이야기 전개 구조와 화자의 의도: 보조사 ‘은/는’을 중심으로, 2016 YONSEI-USC 공동심포지움 발표집, pp91~112.
- 홍사만(2002), 국어 특수조사 신연구, 도서출판 역락.
- 홍정화(2011),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코퍼스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 의

미학 제34집, 한국어 의미학회, pp451~477.

Batstone, Rob(1994),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김지홍 역(2003), 문법, 범문사.

Yang, In-Seok, 1973, Semantics of Delimiters in Korean. *Language Research* 9, Seoul National University, pp84~122.

<교재>

연세한국어1(2011), 연세대학교 출판부.

말이 트이는 한국어1(1999),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송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전자 우편: hansh@yonsei.ac.kr

원고 접수일: 2017. 02. 10

원고 수정일: 2017. 03. 17

게재 확정일: 2017. 03. 19